

Library Resources and National Development :

Use and Control of Eastern Publication by East and West

◆ 基調演說 ◆

圖書館資源과 國家發展

—東西에 있어서의 東洋資料의 利用과 統制—

피터 하바드 윌리암스

IFLA 부회장

영국 라프바르 공과대학 교수

本人은 國際圖書館協會聯盟이 主管하고 韓國圖書館協會가 主催한 이번 世界大會에서 基調演說을 하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大會에 참가하기 위하여 韓國에 도착한지 일주일만에 “國家發展과 圖書館資源”이라는 標題에 관해서 자세하고 기술적인 면을 논하자니 혹시 틀린 점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틀린 점이 있으면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신 런던 駐在 韓國大使館을 비롯하여 여러분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큐멘테이션, 圖書館 및 古文書 情報奉仕機構의 綜合計劃에 대한 政府間會議(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Overall Planning of Documentation, Libraries and Archive Infrastructure), 一名 國家情報體制大會 (NATIS Conference)의 考察과 提案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大會는 開發途上國 뿐만 아니라 특히 國家情報奉仕機構의 全面開發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 大會에서는 情報를 마치 철이나 밀 혹은 전기와 같은 有形的 商品 내지 資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知識있는 社會의 創造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보았습니다. 문화, 과학, 기술분야의 지식과 세상살이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이 印刷된 말, 媒體 및 기타 意思流通方法을 통하여 政府 및 非政府機關의 業務를 理解함으로써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NATIS大會의 目的 몇가지를 상기시켜

目的 1. 國家情報政策. 國家情報政策은 모든 社會 丁린다면,

構成員의 要求와 國家社會 全體의 要求를 反映하여, 國家情報計劃의 設立을 引導하도록 규정하며, 그 要素는 國家發展計劃에 附合되어야 한다. (1)

目的 15. 行動의 長期프로그램. 유네스코가 취할 行動의 長期 프로그램은 會員國이 緊密한 國家情報體制(NATIS)를 計劃 및 設立하는데 있어서 이를 支援하기 위하여 ennial히 檢討될 것이며, 도큐멘테이션과 情報의 急增하는 量과 資料를 傳達하는 데에 全力을 다 할 수 있게 한다. (2)

위 目的은 유네스코 活動을 強調하는 동시에 유네스코 會員國에 의한 長期計劃을 假定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에 다 해당됩니다. 情報가 내포한 어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無形的 것이어서 있다는 것을 認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當然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값도 나가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친구와 동료들 간에 그것을 交換하고 있으며, 비망록이나 보고서 속에서, 혹은 책이나 잡지, 컴퓨터와 資料銀行, 마이크로 자료, 영화, 비데오테이프,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情報란 단지 책이나 텔레비전 혹은 經營實際에서 얻는 副産物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업무에만도 수백 만불을 투입하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見解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보라는 것은 어려운 概念입니다. 그것은 抽象的이며 不活性이고, 人間機關의 介介 없는 動力이 없는 形態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經營學者 Drucker가 “정보는 순전히 形式的이며, 本質的으로 그 자체 안에 또 그 자체에 관한 아무런 意味도 없다. 情報는 人格을 지니지 않는다”(3)라고 말했듯이, 정보에 活力을 불어넣는 것은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相互作用입니다.

Kaplan은 이것을 가리켜서 “單語는 아무런 意味를 지니지 않으나, 사람이 單語에 의해 事物을 意味한다. 情報은 아무런 意味도 지니지 않으나, 사람이 情報을 얻으며 이에 따른 지식 있는 行動을 하거나 지식 있는 意思決定을 내린다”(4)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보는 단지 交換이며 책이나 영화나 보고서의 활력없는 副産物이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보는 NATIS大會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人間의 相互作用 및 정보를 지니는 수많은 無生物體를 포함한 總體의 概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情報은 훨씬 더 重要한 것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資源形態를 포함한 매우 複雜한 關係, 그것이 본질적으로 國家資源이며, 現代技術文明의 복잡성 때문에 이 資源을 輕視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하겠습니다. 정보가 國家資源의 자격이 있음은 실로 많은 研究論文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J. Marshall 교수는 *American Economic Review*(5)에 실린 “Economics of Inquiring, Communicating, Deciding”에서 미국의 知識産業은 國民總生産(GN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가까운 (영국인인 본인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다면) 일본의 The Japanese Computer Usage Development Institute 산하 Computerization Committee는 *The Plan for Information Society*란 책에서 1972년 總經費가 약 650억불에 달하는 5개년 및 14개년 프로그램을 提案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는 國家資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또 세계도처의 關係團體, 要員, 生産分野 등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많은 나라가 情報生産과 그 受容機關의 調整 및 情報生産이 國家生産 全體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필요한 協同의 調整에 대한 重要性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Georges Anderla 교수는 그의 저서 *Information in 1985* (6)에서 知識産業增加의 문제점을 고찰하였습니다. 그는 연간 약 12.5%의 增加率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增加率平價에 있어서 이 숫자를 고수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Helmut Arntz 교수 역시 NATIS大會에 제출한 논문에서 연간 약 12.5%의 增加率을 산출했으며, 1990년경에는 3,000만 내지 3,500만의 과학자, 경제학자, 기술자 등이 情報을 生産해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記錄物의 年間生産량이 1,200만 내지 1,400만에 달할 것이며 (7), “1985년경에는 過去 20년간의 出版物利用에만도 1억5천만에 달하는 記錄物이 利用될 수 있도록 준비상태에 있어야 할 것” (8)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調整과 協同의 중요성은 영국의 British Library설립, 미

국의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및 소련의 Lenin Library 주관의 All Union Library Council과 圖書館網 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科學技術, 그밖의 人間活動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 접어두고, 情報의 相互作用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펼칠까 합니다. 과학기술 이외의 분야를 輕視한다는 것은 목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情報過程에 있어서 정보의 人間面에는 두가지 要素가 있으며, NATIS大會는 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했으며, 또 실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大會에서는 “情報은 科學 및 經濟發達에 필수적인 國家資源인 동시에 社會的 意思疏通의 手段이다”고 밝히면서, 國家社會를 위한 總괄적인 情報政策을 모색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Arntz 박사가 지적했듯이 “사회, 법률 및 문화분야의 情報要求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要求를 만족시켜 줄 필요한 機構는 특히 低開發狀態”(9)인 것입니다.

진보된 工學이 발달함에 따라 결국 生産성이 향상되고 情報體制의 相對的費用이 節減될 것입니다. 한편, 진보된 意思疏通網의 開發은 오직 長期計劃과 協同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오직 國家的 나아가 國際的 次元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선진공업국의 정보전문가나 개발도상국의 국가정보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進歩된 情報體制 자체를 目的으로 동일시하는 위험천만의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情報體制開發의 가장 중요한 要素는 意思疏通입니다. 정보의 人間과의 相互作用은 의사소통의 근본입니다. 영구적인 기록형태로서 이것은 文獻, 圖書 및 古文書 業務에 관한 것입니다. 資料運搬道具(책, 잡지, 필름 등)로부터의 知識 情報疏通은 지식세계를 담은 謄本의 手段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蒐集, 保管 및 利用의 目的입니다. 우리는 情報運搬道具(여기에 知識情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情報 그 자체도 利用者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情報體制에 있어서나 그 토대는 우선적으로 能率의이며 效果的인 圖書 및 古文書 情報奉仕機構 위에, 그리고 意思疏通資料(책, 잡지, 보고서, 마이크로자료 등)의 能率의이며 效果的인 出版機構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全體國家奉仕機構에서 실제로 生産者라 함은 圖書과 일치적으로 관계있는 책, 기사, 필름스트립 등(出版을 위해 記錄된 情報)의 著者 및 未出版資料(비망록, 편지, 미출판보고서 등)와 강의나 전문좌담 같은 未記錄情報의 著者를 포함합니다. 出版社와 圖書販賣業者,

마이크로資料 配給業者 역시 도서관처럼 일차적으로 出版資料의 生産과 配付에 관계합니다. 未出版資料와 口頭傳達의 重要性을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國家 혹은 國際情報奉仕機構의 초석은 能率의인 書誌體制(出版社와 圖書販賣業者, 圖書館을 포함한) 위에 놓아야만 하겠습니까.

도서관은 한편에 있는 出版者와 다른 한편에 있는 大衆과의 사이에 連接하여, 資料가 국가적 혹은 국제적차원에서 (圖書館相互貸借, 국제적인 書誌共同努力을 통해서) 사회에 利用되게 합니다. 어떠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훌륭한 연구노력도 오늘날에는 圖書館의 支援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機關傘下의 奉仕機構는 자세히 고찰되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기관이 專門化할 수록, 산하 도서관이 잘 갖추어진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目的에 부합한 가장 效果的인 도서관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단지 도서관에서 쓸 수 있는 資金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가장 효과적인 도서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特殊 및 大學圖書館이 가장 效果的인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 特殊圖書館은 대학도서관 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더 풍부합니다. 작년에 본인은 브라질에 갔었는데, 그곳의 特殊圖書館은 대학도서관 보다 잘 組織되어 있었고, 大學圖書館은 빈약한 경우도 있었으나, 원래 中央學校圖書館인 공공도서관 보다는 훨씬 더 나왔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산업화를 번영의 비결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의 기술 및 민중사회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산업화도 중요하지만, 노동자가 살고 있는 환경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땅을 가는 사람의 생활환경 역시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이 一員이었던 북부아란지역 公共圖書館奉仕에 관한 한 委員會의 報告書 중에서 修正된 序文을 다음에 인용합니다. 즉,

어느나라나 선진공업국가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圖書館 및 情報奉仕를 開發, 維持하여야 한다. 오직 이으로써, 農工業 生産 및 輸出國家로서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都市나 農村에 사는 國民 누구나 讀書를 통해서 각자의 興味와 能力을 啓發시킬 機會를 가질 수 있다.

한 나라를 國民의 번영과 안락에 달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마치 個人이 幸福을 추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행복은 아무리 직접 추구한다고 해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만족스러운 활동의 副産物이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사랑하는 여인의 일

글을 들여다보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루해지며,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접시를 닦고, 정원의 풀도 뽑고, 추수할 씨를 뿌리는 일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 活動의 적절한 混合體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도 문제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항상 일만하는 것에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끝없는 曲藝는 사회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놀고, 교육받고, 문화적 취미를 개발시키기를 원합니다. 圖書館 및 情報奉仕는 이 점에서 중요한 役割을 할 수 있습니다. NATIS大會는 知識을 갖춘 社會의 重要性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NATIS의 課業은 政治, 經濟, 科學, 教育, 社會 혹은 文化活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社會全體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때에 필요한 情報를 얻고 있는가를 確實하게 함이다. (10)

그렇다면 도서관 및 정보봉사자 사회의 다양한 情報要求를 충족시켜주도록 확립되어야 하겠습니까. 산업체를 위한 정보봉사는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는 그 구성원이 社會役軍으로서 뿐만 아니라, 國民으로서, 個人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처신하는 萬能人間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修行할 수 있도록 圖書館 및 情報奉仕網이 필요합니다.

全體情報奉仕機構의 假定에 있어서 위험스러운 일은 정보의 曖昧性을 가지고 爲政者와 公僕을 설득시킨다는 것입니다. 一例로 과학자는 자연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전문가는 자기 전문분야의 자원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奉仕機構에 대한 經費는 最低이라고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틀린 말도 없을 것입니다. 情報政策의 重要性이 커질수록, 이를 보조하는 情報奉仕機構의 重要性을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책과 잡지에 대한 요구, 마이크로자료, 복사자료, 상업문헌, 보고서, 디렉토리, 그밖의 자료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자료 속에 담겨있는 內容에 대한 知識을 갖추어서 진정한 의미의 情報奉仕를 제공할 수 있는 資格있는 要員의 필요성도 커지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效果的이고 能率의인 圖書館建物の 필요성도 커집니다. 情報奉仕機構의 근본목적은 社會의 利益을 위하여 意思疏通資料를 發掘하는 것입니다. 현대기술 문명의 여건 속에서 건강하고 균형잡힌 社會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 농업생산에 초현대적 경작 기술을 활용하는 농부, 대학생,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경영자, 맹인, 농아, 불구자, 피수, 입원환자 등, 各界各層에서 情報를 다같이 고루게 利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기적은 오로지 조속한 작업

과 급속한 기술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이 아닌 부문에도 情報를 제공하여 人生의 質을 향상시켜야 하며, 세계의 司書들은 文盲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고찰하여야 합니다. 정보 및 도서관 봉사는 社會全體를 위한 것이며, 그 目的은 奉仕對象인 社會와 利用可能한 資源에 비추어 조심스럽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教育者로서, 이 문제해결의 열쇠는 일차적으로 職員의 訓練에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問題를 洞察하는 幹部級專門家가 필수적입니다. 그는 目錄記入의 마침표와 쉼표에 사로 잡히지 않고 能率의 情報, 圖書館 및 古文書 奉仕 全般의 必要事項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점은 항상 量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부문에 各主題分野의 基本적어널 4,000여종은 參考質問의 80%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利用者의 要求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빠르고 능률적인 國家的 奉仕이며 또 실제로 國際奉仕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친구 Donald Urquhart가 *BLL Review* (11)에 실은 연구논문에서 國家에 奉仕하는 現代 國立圖書館의 중요한 성격을 다음과 같이 총괄하였습니다.

1. 內外部 兩職을 신속히 다룰 수 있는 적절한 內部 및 外部의 흐름設備
2. 도서관에서의 事務的인 일을 除去하기 위하여 고안된 書式
3. 會計活動을 節減하기 위하여 고안된 節次
4. 다른 記錄을 찾지 않고도 많은 項目의 所在를 把握할 수 있는 蓄積시스템
5. 적절한 關係組織을 正當化할만한 多數의 要求
6. 複寫資料 가카이에 寫眞複寫施設 設置
7. 貸借資料와 寫眞複寫物의 包藏과 發送을 간단히 취급할 機械施設
8. 거의 모든 要求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藏書
9. 圖書館藏書를 補完하기 위한 他圖書館藏書의 利用

國立圖書館 자체의 광범위한 機能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University Grants Committee's Committee on Libraries의 報告書에서는 國立圖書館活動을 밝히고 있으며 그 標準目錄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 (a) 國家文獻의 뛰어난 中央集書
- (b) 納本制 혹은 版權法에 의하여 納入된 圖書의 가장 중요한 集書
- (c) 外國文獻의 完全한 取扱
- (d) 國家書誌의 出版
- (e) 國家書誌情報 센터
- (f) 國立圖書館 및 國內圖書館 所藏資料目錄의 出版

- (g) 圖書館相互貸借 센터
- (h) 圖書館技術에 관한 研究指導
- (i) 各國의 國際交換奉仕센터
- (j) 複本資料配付센터
- (k) 專門司書職訓練센터
- (l) 모든 종류의 圖書館에 대한 書誌 및 기타 支援센터
- (m) 各國의 圖書館奉仕 計劃 센터

그러나 國立圖書館이 위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地域社會에 봉사하는 기타 圖書館網(network)의 協助를 구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라함은 產業體, 教育機關, 市政 및 道行政區劃을 뜻합니다. 全體國家情報奉仕機構의 設立과 開發에 있어서 能率의 人 資源의 最適使用과 필요한 資源, 建物 및 意思疏通資料의 配置는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중한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본인은 다시 職員의 문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어떠한 개발도상국에서나 이 분야에 관하여 情報 및 圖書館의 幹部級 經營者를 우선적으로 教育과 訓練을 시켜야 합니다. Donald Urquhart는 최근의 논문 *National Information Policy* (13)에서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圖書館 및 情報奉仕 要員으로는 자기 다른 素養과 能力이 있는 개개인을 廣範圍하게 필요로 한다. 이들 개인은 經營資質이 있는 자이거나 새로운 技術을 導入하는 能力이 있는 자 등이며, 訓練은 바라는 最終結果와 연결시켜 적절한 能力을 갖춘 자를 選擇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또한 分析力과 創意性을 가진 幹部陣이 필요하다. 이는 情報奉仕를 運營하며 결국 管理하게 될 사람들이 獨創的인 圖書館 및 情報奉仕에 대하여 數的 및 分析的 能力을 심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圖書館 및 情報奉仕와 古文書奉仕에는 정부, 산업 및 상업에서 필요로 하는 明哲한 젊은이들——社會의으로 그리고 知性面에서 기민하며 情緒面에서 균형 잡혀 있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地域社會의 善과 發展에 헌신적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를 分析的으로 洞察하며, 情報傳達, 書誌知識, 意思疏通 및 개발도상국의 國家情報奉仕機構의 組織 혹은 開發計劃에 익숙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도서관의 저어널의 소요경비를 막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자료를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利用할 필요가 있음은 밝히고 싶습니다. 만일 과학기술부문의 질문 전체의 80%가 4,000여종의 저어널에서 답해질 수 있다면, 가령 16,000종의 저어널을 택하는 이유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정

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高等教育機關의 수준에서는 각국의 高等教育概念에 따라서 규정된 여러 基準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基準에는 大學圖書館에 대하여 정당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教授 및 리서치 프로그램에 필요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선택된 책과 기타 매체를 잘 갖춘 圖書館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대체적으로 잘 해나왔으며, 英聯邦國家의 경우는 확실히 그러하다고 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圖書館施設의 신데렐라는 學校 및 公共圖書館이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英美概念은 비교적 늦게 등장하였습니다. 一般大衆의 情報, 教育 및 娛樂를 위하여 존재하는 도서관은 글을 알며 비교적 세련되어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人口層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도처의 教育實態에 있어서 불행한 면은 교육받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假定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현시점까지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自己教育機關으로서 損益(cost/benefit)면에서 볼 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짝니다. 일정한 최저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讀書, 情報問議, 그리고 學習資料——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자료, 시청각자료, 프로그램 학습자료 등——의 利用을 통해서 自身을 教育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사서들이 널리 일반국민이 사용할 적절한 水準과 類型의 冊과 기타 圖書館資料를 생산해 주도록 圖書出版業界에 대하여 영향력을 늘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圖書界는 가장 넓은 면에서 보아야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 사서는 自國出版物의 이용을 장려하여야 하며 文盲退治計劃이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文獻의 利用을 장려하여야 할 특수한 義務를 지닙니다. 슬프게도 司書는 국가의 教育 및 意思疏通計劃의 일부로서 지니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機能보다는 흔히 관료주의의 마침표와 쉼표에 더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년전에 불란서 니스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 Book에서 열린 심포지움에 본인은 "Libraries and Leisure"이라고 하는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이것을 쓰면서 公共圖書館奉仕의 목적을 심각하게 재고했었으며 教育機關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老少 누구나 고르게 교육, 문화 및 정보를 이용하고 여하한 표현형태의 情報 및 思想을 전달하는 活力素"라고 보았습니다. 이 引用句는 유네스코 公共圖書館宣言文(Unesco Manifesto on Public Libraries)에서 따온 부분이며, 본인은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귀결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나라에서나 활기있고 생기에 넘치는 민주주의는 현대과학기술세계의 여진 속에서 모든 思想에 대한 전문가 뿐만 아니라 社會全體의 고른 利用에서 찾을 수 있음니

다. 고조되는 관료주의 속에서 현대농업, 현대산업 및 생활전반이 成長한 까닭은 대부분 여러 형태의 印刷된 말에서 얻어진 知識 때문 입니다. 여러분은 또 1973년 IFLA가 발행한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판물은 서독 문헌의 Verlag Documentation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公共圖書館에 역점을 둔 이유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輕視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建物과 그 다음 마지막으로 network에 관하여 거론하기에 앞서, 諮問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간 활동의 여러 면에서 問題를 안고 있는 나라가 政府機關과의 雙務規定이나 유네스코와 같은 國際團體를 통하여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문의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음미하여야 할 黃金律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즉, 諮問의 質은 要請期間에 反比例하여 변한다는 것입니다. 환언한다면, 요청기간이 짧을수록 最高의 諮問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가장 훌륭한 전문가가는 항상 국내의 업무부담량이 많아서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諮問이 國家情報開發計劃, 公共圖書館網計劃, 專門教育 및 人力開發 프로그램 確立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建物에 관한 助言을 제시할까 합니다. 이 분야는 본인이 지난 수년동안 특히 관여해 왔으며 또 영광스럽게도 1971년 IFLA가 조직한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lloquium on University Library Buildings의 議長으로 위촉되었었습니다. 세계도처에는 專門家の 助言 없이 설계된 建物の 수가 여럿이며, 어리석은 실수가 저질러진 예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부적당한 敷地에서 書架의 木材를 아끼려다가 서가가 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휘거나 썩쇠를 똑바로 세워두어서 서가가 넘어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최근에 본인은 司書로 고용된 建築家가 설계한 새 건물을 본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심지어 既存圖書館所藏圖書(하나도 추가하지 않고)도 수용할 수 없었으며, 또 설령 수용능력이 있다고 해도 바닥이 圖書集積에 견디지 못하여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새 건물의 使用代案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경비는 사실상 완전히 낭비되었습니다. 영국의 건물은 처음에 계획되었던 자료수용량의 60%밖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건축가가 부적절한 지시에 의하여 建物構造에 있어서 기둥의 간격을 잘못 설정한 때문입니다. 고등교육기관, 학교, 병원, 교도소, 양로원, 산업체를 위한 도서관이든, 혹은 地域社會活動의 焦點으로서 도서관을 건

립할 계획이든 간에 좋고 매력적인 圖書館建物에는 費用을 들일 가치가 있으며 또 현대의 국가 개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훌륭한 諮問을 구하시도록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비교적 적은 諮問謝禮金이 쓸모없는 건물의 費用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建物問題에 대하여 이 이상 더 추가해야 할 중요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國家計劃의 重要性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유럽의 圖書館規定의 複雜性은 國家計劃을 실행하는 때에는 뒤따르는 既得權이 많기 때문에 원만한 수행이 어렵다는 점에 크게 기인합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른 까닭에 이는 함담치 않습니다. 이점이 國家情報奉仕機構에 유능한 要員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전체인구 1인당 2파운드(4불 혹은 2,000원)의 年間經費가 公共圖書館에 책정되며, 약 50 페니(1불 혹은 500원)의 경비가 大學圖書館에 배당되고, 또 그밖의 教育機關의 圖書館에는 위 액수를 합한 3파운드 혹은 6불 정도가 배당됩니다. 인구가 약 3,500 만인 경우에는, 국립, 학교 및 특수 도서관을 제외한 잘 조직된 圖書館奉仕에는 연간 2억불(1,000억원)이란 숫자의 비용이라는 셈입니다. 利用者中心의 奉仕를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돈을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만이 이러한 류의 經費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國家計劃委員會의 重要性은 一翼으로서의 대다수 利用者와, 정보, 도서관 및 고문서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專門家의 諮問과 더불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開發은 5년 혹은 3년도 토대로 計劃되어야 하며, 國家發達綜合計劃 속에 統合되어야 합니다.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全體國家情報奉仕機構는 오직 意思疏通資料, 즉 圖書, 저어널, 報告書, 古文書 마이크로資料 등의 적절한 供給 위에 만족스럽게 기초를 둘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資料의 蒐集, 組織 및 發掘 計劃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적절한 政府 및 기타의 支援, 적절한 人力프로그램開發, 적절한 資格이 있는 (그리고 人格의 重要性이 도외시되어서는 안됩니다) 要員의 誘致, 그리고 매력적이고 경제적이며 또 目的에 맞게 設計된 建物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建物에서 利用者와 職員이 最適水準에서 현대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건밀히 영향을 미치는 情報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 정부, 경제 및 사회개발, 사회적 의사소통, 예술과 순수문학, 역사와 철학, 국제 이해 및 삶전체의 영역에서, 그리고 농부이거나 산업역군, 법률가, 점포상인, 공복(公僕), 교수, 혹은 대사(大使)이거나 간에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유네스코 公共圖書館宣言文의 귀절을 상기해 봅시다 :

이 宣言文은 公共圖書館이 教育, 文化 및 情報의 活力素이며 平和를 아끼며 國民相互間 및 國家相互間의 理解를 위하여 必須的인 機關이라는 유네스코의 信義를 宣言하는 바이다.

全體國家機構로서 적합하게 組織된 情報, 圖書館 및 古文書奉仕가 貢獻하는 바, 이번 일주일의 大會期間 동안에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各國의 좋은 삶의 開發, 國家間의 平和와 理解의 啓發, 東西洋의 相互理解 促進, 專門人으로서 우리가 관여하는 UBC와 같은 國家的 나아가 國際的 分野의 보다 효과적인 課業에 대한 激勵이라고 하겠습니다. UBC프로젝트는 Council of Library Resources, British Library 및 유네스코를 비롯한 많은 機關의 支援을 받아 모든 나라의 보다 나은 書誌情報提供을 돕기 위하여 IFLA가 發起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심사숙고하며 나아가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서울大會를 主催하신 組織委員 여러분께 감사하며, 이大會가 IFLA史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의 關係改善에 중요한 契機가 되는 가장 成功的인 一週일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註

- (1) Unesco.
- (2) *Ibid*, p. 32.
- (3) Drucker, F., *Technology, Management and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1970, p. 12.
- (4) Kaplan, Abraham, The age of the symbol—a philosophy of library education in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Library Education* ed. D.R. Swans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 8.
- (5) 58 (2) 1968, 1—8.
- (6) Paris, OECD, 1973.
- (7) Unesco, Com. 74/NATIS/Ref. 2, p. 10.
- (8) *Ibid*, p. 11.
- (9) *Ibid*, p. 11.
- (10) Unesco COM/MD/30, 1975, p. 24.
- (11) “National lending/reference libraries or libraries of first resort” *BLL Review*, 4(1), pp. 7—10.
- (12) HMSO, 1967, Ch. VII, p. 81.
- (13) Unesco, Paris, 1976 (Com. 76/Natis/6), p. 19.
- (14) “Les bibliothèques publique et loisins” (*ABF Bulletin*, June, 1976).